성경공부 대신 하나님 껴안기

(호세아 6:1~1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경공부 대신 하나님 껴안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성경공부 대신 하나님 껴안기'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신학의 백미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기독교 강요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연구하는 대신 껴안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뜻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구나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접촉하여 느낌으로써만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앎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구호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와 명사형의 '다아트'라는 말은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감하여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구하거나 공부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만으로도 호세아 선지자의 영적인 천재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권면자체는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어도,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민들에게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힘써 알라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전해진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에 얽힌 역사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힘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프’는 ‘추적하다, 뒤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적은 도망가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거나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추적은 놓치면 큰일 난다는 조바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 제 차가 앞서 가고 뒤따라오시게 됩니다. 물론 강릉은 교통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앞차를 놓칠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지나 고속도로라면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는 앞차를 놓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경찰들이 탈옥범을 추적하듯이 조바심이 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을 직역해보자면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추적하자, 추적하여 여호와를 붙잡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놓칠까 조바심을 내면서 추적하여 기어코 마음을 닿게 하여 체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추적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적하여 붙잡고 접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역사 이래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구름이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은 떠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서 추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께 마음을 접촉시키고자 안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듯이 반드시 만나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바심을 갖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노력에 비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추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주시고 접촉을 허락해주셔서 그로부터 생기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촉을 통해 주어지는 느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계속해서 3절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비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서 나온 비는 이른 비이고 뒤에 나온 비는 늦은 비입니다.
중동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재의 달력으로 12월에서 2월이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씨가 발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기에 앞서 비를 기다립니다. 파종 때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3~4개월이 지나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막바지로 곡식을 키우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온전한 하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원초적 감정은 바로 갈증입니다. 이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은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금문제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사업 자금을 구해보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사정을 듣더니 선뜻 투자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단비 같습니다. 또 좋아하는 여성에게 3년간이나 구애를 했는데 드디어 데이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는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갈증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갈증이 해결되어도 곧 다른 갈증이 생겨납니다. 취직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승진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결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에 성공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의 형통에 대한 갈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추적하여 마음의 접촉을 이룰 때에는 모든 갈증이 끝이 납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욱 놀라운 기적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져도 이윽고 다른 갈증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선택은 아예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안좋은 건강 상태에서 주어진 느낌을 가지고 건강하게 되기만을 바라며 걱정하고 조바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접촉

시키겠다는 선택을 할 때에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에서 건강에 대한 갈증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위해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변화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서 건강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돈 문제로 마음의 갈증을 겪던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접촉시키자 그 느낌으로부터 돈에 대한 갈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민들이 이 좋은 하나님에 대한 앎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추적해서라도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의 접촉을 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앎에 대해 착각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느껴보기를 원치 않고 성경공부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와 연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마음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 바닷가에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호텔 두 곳이 생겼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속에 호텔이 있는데 가족단위의 숙박이 많아서 주말이 되면 바닷가가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아기들이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지치면 아빠 품에 안겨서 잠이 드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아기들은 아빠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기들이 아빠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아무에게나 안기지 않습니다. 아빠가 없어지면 금방 울다가 아빠를 찾으면 달려가서 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선민은 하나님과 마음의 접촉을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껴안고 느껴야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성장은 이와 반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

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파보이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힘쓴다는 말이 본래 추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살리신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며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의 마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마음의 살이 되어버립니다. 유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장기와 기관이 밀착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막을 통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붙어버리는 유착이 일어나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과 세상의 접촉이 지속되다보면 그것들이 살이 되는 유착이 일어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살이 될 수 있고 돈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마음의 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접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놓치는 상태입니다.

3년을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다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인이 마음에서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우상숭배의 문제도 바로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유착이 일어나자 그 결과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에 마음이 오래 닿아있는 동안 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위해서는 찢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접촉되어 있고 붙어있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적하는 과정이 바로 마음의 유착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낸다고 하였습니다. 마음과 세상이 접촉하여 유착되기 전에 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쳐내실 것입니다. 그 일이 성공해서 마음의 접촉이 지속된다면 유착이 일어나게 되어 찢어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찢어내고 쳐내는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과의 유착이 마음의 더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워진 마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심을 통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예표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하듯이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을 접촉하여 체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찢으심과 쳐내심과 죽이심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며 구약에서는 성전의 번제단에서 어린양을 죽이는 것으로 예표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마음에 유착된 배우자와 자녀와 재산을 결코 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찢으시고 쳐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기독교 사상의 전부를 말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추적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찢어짐과 쳐내심과 죽음은 예수님이 모두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과 유착되었거나 유착되어 더러워진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추적해서 붙잡고 접촉함으로 그 느낌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감사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찢기심과 쳐내심과 죽으심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적하듯 하나님과 마음의 접촉을 이루는 동안 갈증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찢김과 쳐내심과 죽으심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추적하여 붙잡고 접촉함을 통하여 그 느낌으로 갈증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